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톨릭 방송 후원회 이사님과 회원님들께



그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뉴저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메이플우드)에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선을 기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은 지독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의 선교 사명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적,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 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라이브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마태 14,22-33), 코로나 19 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욱 더 필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이 일치할 때,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4 년, 가톨릭 선교방송이 위기를 맞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7 년 동안 가톨릭방송을 훌륭히 지도해주신 조민현 요셉 신부님께 (성 마이클 성당, 팰팩) 감사드립니다. 요셉 신부님께서서는 온라인(유튜브)과 TV 를 통해, 신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봉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시고, 코로나 19 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 신부님의 후임 사제요, 후배 사제로서,

미동북부 가톨릭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잠깐, 안내해드립니다

*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가톨릭 센터에서, “취임식 미사 및 후원회원님을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 센터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여 앉을 것입니다.

***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미사는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2020-2021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방송국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앞으로 가톨릭 방송이 모든 신부님들과 신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신부님이신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 조민현 요셉 신부님, 이경 바오로 신부님을 경영 이사진으로 하고, 미동북부 중신 부제님들이 자문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2. 방송 후원회 이사님들과 회원님들을 위해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가톨릭 센터에서, 후원회 미사가 있겠습니다. 미사 후에는 간단한 다과가 준비될 것입니다. 미동북부 가톨릭 선교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평신도 분들과 소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미사 중에, 후원회 회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 2020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콘텐츠를 개발하여, 신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미동부(보스톤, 필라,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서부, 중남부에 있는 많은 선배 신부님들과 후배 신부님들 연결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한국어와 영어, 다양하고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원거리 지원 방식의 out sourcing 을 계획 중입니다.
4. 코로나 팬데믹 동안 완성된 “KCB 가톨릭 방송” 구글 안드로이드 앱과 애플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친근한 가톨릭 방송이 될 것입니다. 많은 홍보와 신자분들의 영적 물질 지원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가톨릭 선교방송이 될 것입니다.
5. 미동북부 신자들의 신앙과 삶이 반영되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미동북부 각 단체들(꾸르실료, 성령봉사회, 레지오 마리아 와 ME, CLC, 작은형제회 재속회, 가르멜회, 꽃동네 등) 행사를 함께 공유하고, 홍보영상이나 영성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도록 봉사할 것입니다.
6. 미동북부 가톨릭 선교 방송 주최로, 성소주일 행사, 피정, 남미선교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신부님들과 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또는 격년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7. 신부님들께서 도움을 요청 할 때, 여러분들 본당에 필요한 행사를 촬영하겠습니다. 신부님들의 강의 피정들을 촬영하여, 미동북부 본당들이 한 가족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가톨릭 선교방송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화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김영민 (미카엘) 신부. 올림